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 성장요인 분해를 통해 본 최근 한국경제의 특징
- 한국경제, 조로화(早老化)-저성장 함정에서 탈출이 시급하다.

목 차

■ 성장요인 분해를 통해 본 최근 한국경제의 특징

- 한국경제, 조로화(早老化)-저성장 함정에서 탈출이 시급하다.

Executive Summary	i
1. 개 요	1
2. 성장요인 분해를 통해 본 최근 한국경제의 특징	2
3. 시사점	12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 제 연 구 실 : 주 원 이 사 대 우 (2072-6235, juwon@hri.co.kr)

Executive Summary

□ 성장요인 분해를 통해 본 최근 한국경제의 특징

■ 개 요

최근 한국 경제의 저성장이 장기화되고 있다. 올해까지 세계 경제성장률보다 한국 경제성장률이 낮은 수준을 기록하는 기간이 6년 연속 지속중이다. 나아가 IMF의 전망에 따르면 향후에도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의 성장 속도는 더욱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물론 경제발전 단계가 높은 선진국의 경제성장률이 세계 경제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은 당연할 수 있으나, 아직 한국경제는 1인당 국민소득 3만불이 채 되지 않은 중진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경제 성장의 조로화(早老化)가 너무 빨리 진행된다는 우려감이 존재한다. 이에 최근 한국 경제의 성장 요인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해를 해보고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부분과 취약한 부분을 확인해 보았으며, 이를 통해 성장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모색해 보았다.

■ 성장요인 분해를 통해 본 최근 한국경제의 특징

경제성장률을 분해해 본 결과 첫째 (의사내수중심 경제), 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급감하는 가운데 그나마 취약한 내수 부문이 경제성장률 추가 하락을 방어하고 있다. 내수중심의 경제는 추세적으로 성장의 동인을 수출이 아닌 내수에서 확보하는 경제를 의미한다. 대체로 선진국중 대규모 개방 경제인 미국, EU 등의 1인당 구매력과 시장 규모가 거대한 국가를 의미한다. 한국의 최근 경제성장률을 내수와 수출로 분해해 볼 경우, 과거에는 수출의 기여도가 절대적이었으나 최근에는 내수가 경제 성장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한국 경제도 내수 중심의 경제 구조로 진화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수출침체의 장기화로 내수의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이지 실제 내수 중심의 경제와는 거리가 먼 의사(擬似, Pseudo)내수중심 경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공공-민간 간 분절 경제), 공공 부문의 성장 견인력이 급증하였으나 민간 부문을 충분히 견인하지 못하고 있다. 경기가 불황 국면에 위치할 경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정부지출 확대(또는 감세정책)를 통해, 민간수요의 침체를 보완하고 나아가 민간 수요를 유인하는 것이다. 최근 공공부문이 직접적으로 성장에 기여하는 바는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민간 부문의 경제성장률은 2016년 1분기에 전년동기대비 1.7%로 전체 경제성장률 2.8%와 1%p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즉 공공 수요의 확대가 민간 부문 수요를 진작시키는 데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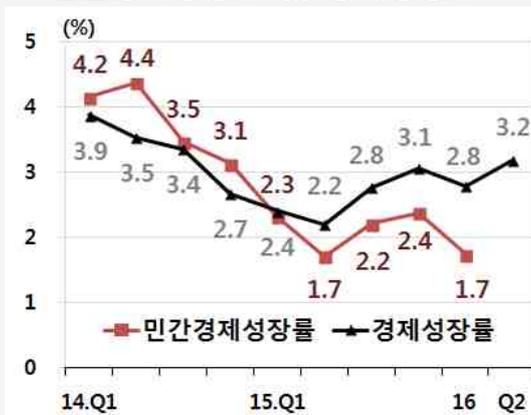
셋째 (유동성의존 경제), 실물 경제가 아닌 풍부한 유동성에 의존하는 불안정한 경제 성장 구조를 보인다. 대내외 수요의 극심한 침체로 중앙은행이 저금리 정책을 펼치고 재정지출이 확대되면서 시중에 유동성이 급증하였다. 이러한 확장적인 통화 및 재정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실물 경제의 건전한 회복이다. 그러나 유동성 증가율이 실물경제 성장 속도를 크게 넘어서고 있으며, 나아가 창출되는 신용이 산업(기업) 부문보다 가계대출로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면서 경제 불안정성을 확대시키고 있다.

넷째 (산업노화 경제), 경제성장을 산업구조적 관점에서 본다면 주력산업들의 노화와 리딩섹터가 존재하지 않는 역동성이 사라진 균형성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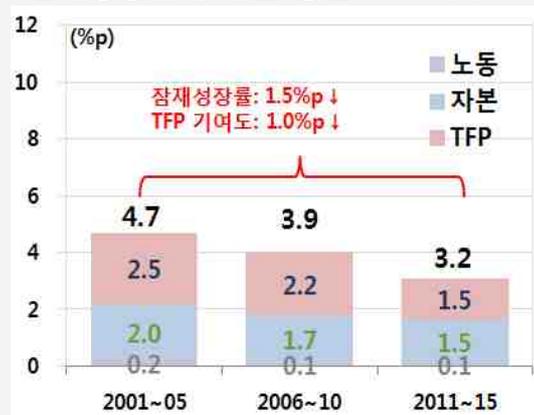
미 상당수 제조업의 활동성이 약화되고 있으며 일부 제조업의 경우에는 산업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비스업의 경우에도 성장성이 높은 업종은 공공행정 국방과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의 공공 섹터와 도소매음식숙박업 등의 저부가업종에 성장력이 집중되고 있으며, 사업서비스 등 고부가 업종은 활동성이 미약한 상황이다. 나아가 ICT 산업 이후 새로운 리딩산업도 부상하지 못하면서 산업구조의 노화가 빠르게 진행중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비효율 경제), 생산요소적 관점에서 보면 효율성과 생산성이 아닌 외형 중심의 경제 구조가 심화되고 있다. 최근 2%대 성장률이 고착화될 것이라는 우려에는 세계 경제의 불황보다는 경쟁력의 하락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인식이 존재한다. 만약 이러한 취약점이 개선되지 못 한다면 세계 경제가 회복 국면으로 전환되더라도 한국 경제는 여전히 불황을 보이는 경기 디커플링을 보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생산요소중에서 TFP의 성장 기여도가 빠르게 하락하면서 최근 성장률 하락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이른바 선진국으로의 경제발전단계에 반드시 필요한 효율성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산업체력을 감안하지 않은 무리한 고용장려정책으로 경제의 생산성은 크게 악화되고 있다. 취업자 1인당 실질GDP 증가율로 살펴보면 금융위기 이전(2001~07년) 3.4%에서 이후(2011~15년) 1.2%로 최근 경제성장률 하락의 상당 부분이 생산성 하락에 원인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민간경제성장률 및 경제성장률>



<잠재성장률에 대한 생산요소 기여도>



자료 : 한국은행, 현대경제연구원.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주 : 민간경제=GDP-(정부소비+정부고정투자+통계상불일치).

■ 시사점

아직 중진국 단계에 머물고 있는 한국경제의 조로화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첫째, 대외 수요의 제약이라는 한계가 있으나 수출 경기 회복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 둘째, 경제 활성화 정책이 민간 수요 진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가계소비 및 기업투자 유인에 주력해야 한다. 셋째, 유동성 확대 정책을 지속하되 가계 쪽으로 집중되고 있는 부채 문제에 대한 관리 노력이 요구된다. 넷째, 제조업 내 구조조정에 따른 산업공백기 방지와 서비스업 내 고부가 산업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산업구조 모델의 정립이 시급하다. 다섯째, 실효적 R&D 투자 활동 지속과 부가가치창출 중심의 기업문화 확립 등을 통해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1. 개요

○ (연구배경) 한국 경제의 저성장 국면 고착화 현상에 대하여 분석해 보고, 이를 통해 최근 한국 경제의 특징을 도출

- 최근 한국 경제의 저성장 국면 진입이 생각보다 일찍 도래하는 경제의 조로화(早老化) 현상이 발견

- IMF 자료에 의하면 2011년 이후 올해까지 세계 경제성장률보다 한국 경제 성장률이 낮은 수준을 기록하는 기간이 6년을 지속중임
- 특히 향후에도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의 성장 속도는 더욱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임(2015년 0.5%p에서 2021년 0.9%p로 확대)
- 물론 경제발전 단계가 높은 선진국의 경제성장률이 세계 경제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은 당연할 수 있으나,
- 아직 한국 경제의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불이 채 되지 않은 중진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경제 성장의 조로화(早老化)가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를 낳게 함

- 이에 최근 한국 경제의 성장 요인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해를 해보고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부분과 취약한 부분을 확인해 보았으며, 이를 통해 성장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모색해 보았음

<IMF의 세계경제성장률 및 한국경제성장률 추이 및 전망>



자료 : IMF.

주 : 2016년 이후는 IMF 2016년 4월 시점 전망.

2. 성장요인 분해를 통해 본 최근 한국경제의 특징

① 의사(擬似, Pseudo) 내수중심 경제

○ 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급감하면서 내수 부문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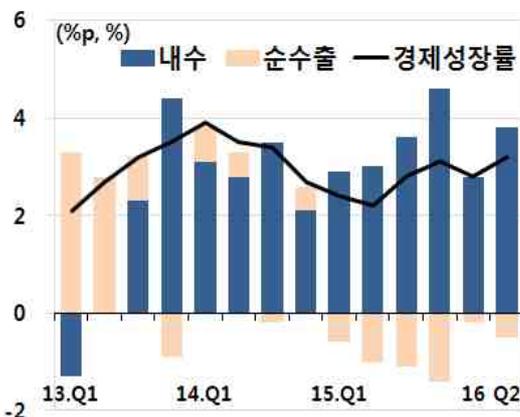
- 최근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마이너스를 지속하고, 수출의 실제 부가가치 창출력도 약화되면서 내수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높아지는 모습

- 2016년 2분기에 들어 내수와 순수출의 경제성장률(3.2%)에 대한 기여도는 각각 3.8%p 및 $\Delta 0.5$ p로 순수출이 경제성장률을 잠식하는 모습이 나타남
- 순수출에서 수입 부문에 대해 내수와 수출의 수입유발 정도를 고려하여 실제 부가가치 유발 수준을 감안하더라도, 내수가 부가가치에 기여하는 비중은 2013년 1분기 70.7%에서 2016년 2분기에 71.8%로 높아짐

- 다만 이를 근거로 한국 경제가 선진국형인 내수 중심의 경제 구조로 진화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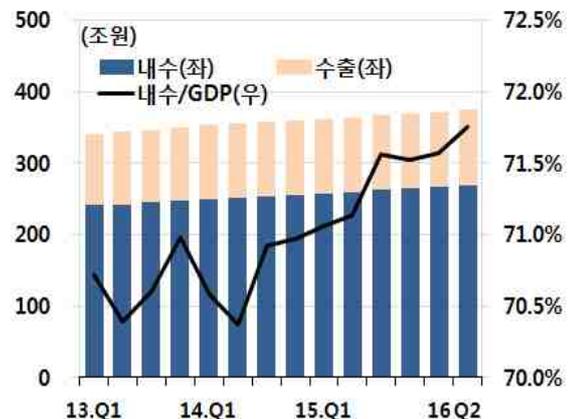
- 내수중심의 경제는 추세적으로 성장의 동인을 수출이 아닌 내수에서 확보하는 경제를 의미하며, 대체로 선진국중 대규모 개방 경제인 미국, EU 등의 1인당 구매력과 시장 규모가 거대한 국가가 해당됨
- 최근 한국경제의 내수 비중이 높아진 것은 수출침체로 내수의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커진 것뿐이지 실제 내수 중심의 경제와는 거리가 멀다고 판단됨

<수출 및 내수의 경제성장 기여도>



자료 : 한국은행, 현대경제연구원.
주 : 순수출은 수출-수입.

<수입유발효과를 보정한 내수/GDP비중>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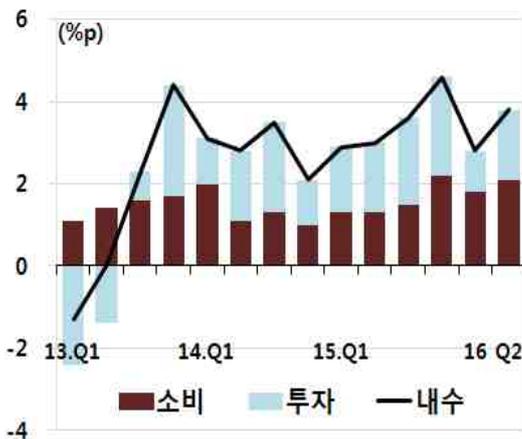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주 : 국민계정과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계산.

1) 수출과 내수의 수입유발효과를 수입에 반영하여 실제 수출과 내수의 부가가치 기여분을 계산함. 여기서의 원자료는 계절조정 실질 계열을 사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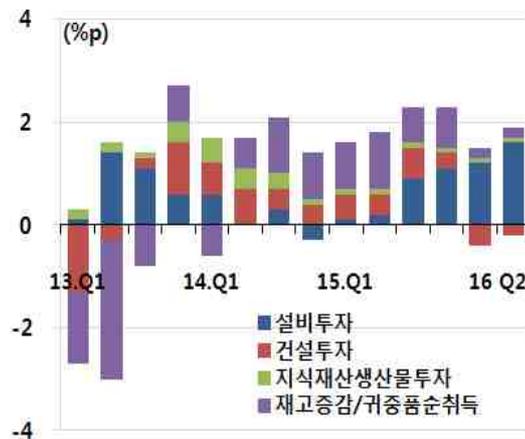
- 내수 부문을 다시 소비와 투자로 나누어 보면 최근 소비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투자에 대한 기여도를 상회하는 역전 현상이 발생
 - 최근에 나타난 현상으로 2014년(1분기 제외)과 2015년에는 대체로 소비보다 투자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높은 수준을 기록함
 - 2014~15년 투자의 성장기여도는 분기평균 1.7%p로 소비의 1.5%p를 상회함
 - 반면 2016년 2분기 현재 소비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2.1%p로 투자의 기여도 1.7%p를 상회하고 있음 (1분기에도 소비 기여도는 1.8%p로 투자 기여도 1.0%p를 상회함)
- 투자 내로 시각을 한정하면 2016년에 들어 건설투자의 성장 기여도가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설비투자 기여도가 높아지는 모습
 - 투자 부문을 나누어서 보면 설비투자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2013년 4분기 ~ 2015년 3분기까지 1%p 미만에 불과하였으나, 2015년 4분기에 1.1%p, 2016년 1분기 1.2%p, 2분기 1.6%p로 높아지는 모습임
 - 반면 건설투자는 2014년 1분기~2015년 4분기까지 0%p대의 기여도를 기록하였으나, 2016년 1분기와 2분기에 들어 마이너스의 기여도로 전환됨
 - 재고(귀중품순취득 포함) 부문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2014년 2분기 ~ 2015년 2분기까지 1%p 내외의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2016년 상반기중 0.2%p 수준으로 크게 하락함

<소비와 투자의 성장 기여도>



자료 : 한국은행, 현대경제연구원.
주 : 내수 = 소비 + 투자.

<투자 부문별 성장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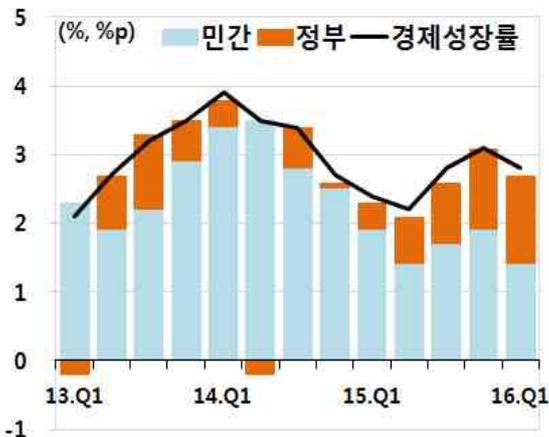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② 공공-민간 간 분절 경제

○ 공공 부문의 성장 견인력이 급증하였으나 민간 부문을 충분히 견인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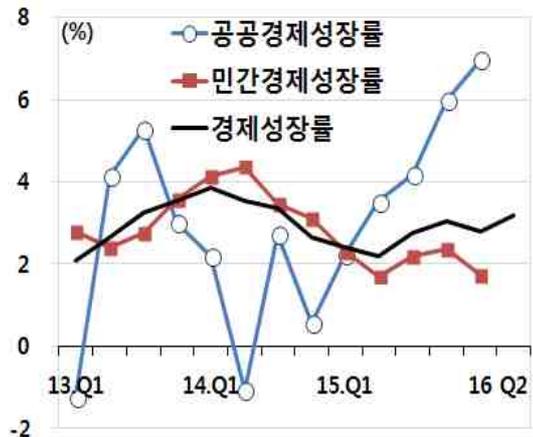
- 경기가 불황 국면에 위치할 경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정부지출 확대(또는 감세정책)를 통해, 민간 수요의 침체를 보완하고 나아가 민간 수요를 유인하는 것이나 최근에는 침체를 보완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최근 공공 부문이 직접적으로 성장에 기여하는 바는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나 민간 부문의 수요를 진작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
 - 2016년 1분기 민간의 경제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는 1.4%p이고 공공의 기여도는 1.3%p로 비슷한 수준의 성장 기여분을 기록함
 - 2013~2015년 분기평균 기여도를 보면 민간 부문이 2.4%p, 공공 부문이 0.5%p로 공공의 성장 기여도는 민간 부문의 약 20% 정도에 불과했음
- 이에 따라 공공 부문의 경제성장 기여분을 제거하고 순수하게 민간 부문의 경제성장률을 계산해 보면 2016년 1분기 현재 1.7% 수준을 기록
 - 공공 부문 경제성장률은 2015년 1분기 전년동기대비 2.3%에서 1년 만인 2016년 1분기에 7.0%로 급증함
 - 반면 민간 부문²⁾ 경제성장률은 같은 기간 2.3%에서 1.7%로 하락함

<민간 및 공공 부문의 성장 기여도>



자료 : 한국은행.
 주 : 공공부문 = 정부소비 + 정부고정투자.

<민간 및 공공 경제성장률 추이>



자료 : 한국은행, 현대경제연구원.
 주 : 공공부문 = 정부소비 + 정부고정투자.

2) 민간 부문에 대해서는 GDP - 정부 부문(정부소비+정부고정투자) - 통계상불일치로 자체 정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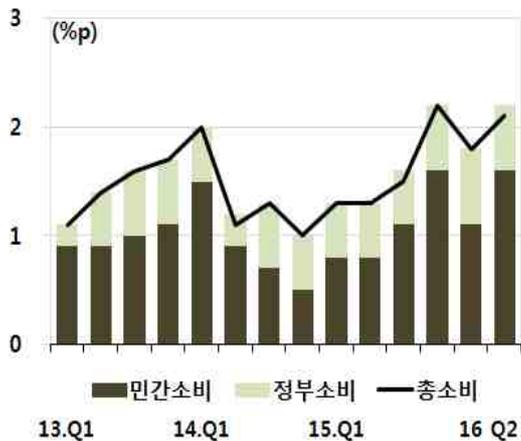
- 2016년 상반기중 총소비 증가분의 약 3분의 1 정도가 정부소비의 직접적 기여도로 판단

- 경기 침체를 보완하기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소비 지출이 확대되는 경향으로 정부소비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2013년 이후 거의 대부분의 분기에서 0.5%p 이상을 유지함
- 한편 민간소비의 성장 기여도는 2014년 2분기 ~ 2015년 2분기까지 0%p대의 침체를 지속하다가 최근에 들어 1%대의 경제성장 기여도를 기록함
- 소비 부문에 있어서 최근 정부소비의 기여도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민간소비의 기여도 변동성이 큰 것으로 보아 정부소비와 민간소비의 상관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됨

- 특히 최근에 들어 총고정투자의 공공투자(정부고정투자)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크게 높아지고 있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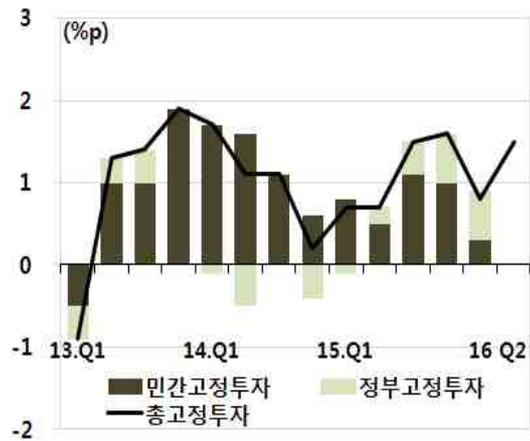
- 2014년 1분기부터 2015년 1분기까지 공공투자(정부고정투자)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마이너스를 기록함
- 그러나 2015년 2분기에 공공투자 기여도가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2016년 1분기를 기준으로 할 때 총고정투자의 경제성장 기여도 0.8%p중 0.6%p가 공공투자에서 기인됨
- 고정투자에서도 정부투자 및 민간투자의 기여도 간의 방향성 자체의 역의 움직임도 관찰되고 있어 공공투자의 견인 효과를 발견하기 어려움

<민간 및 정부 소비의 성장 기여도>



자료 : 한국은행.

<민간 및 정부 고정투자의 성장 기여도>



자료 :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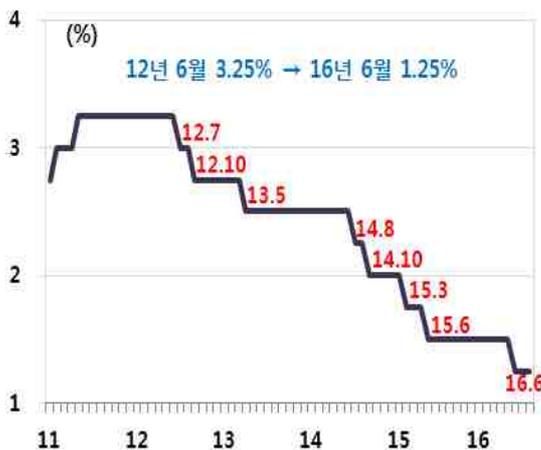
③ 유동성 의존 경제

○ 실물 경제가 아닌 풍부한 유동성에 의존하는 불안정한 경제 성장 구조

- 대내외 수요의 극심한 침체로 중앙은행이 저금리 정책을 펼치고 재정지출이 확대되면서 시중에 유동성이 급증
 - 2012년 이후 4년 동안 총 8번에 걸친 기준금리 변경으로 3.25%에서 1.25%로 2%p가 인하됨
 - 이에 따라 시중에 유동성이 크게 공급되면서 경제가 실물 부문에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풍부한 유동성에 의존하는 ‘유동성 경제’의 성장 구조를 보임

- 대내외 수요의 극심한 침체로 중앙은행이 저금리 정책을 펼치고 재정지출이 확대되면서 시중에 유동성이 급증
 - 재정지출액 규모는 2011년 304.4조원에서 2016년 395.3조원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이에 따라 재정지출/GDP 비율은 2011년 22.8%에서 2016년 24.4%로 증가가 예상됨

<기준금리 추이>



자료 : 한국은행.
주 : 그림 내 숫자는 기준금리 변경연월.

<재정지출/GDP 추이>³⁾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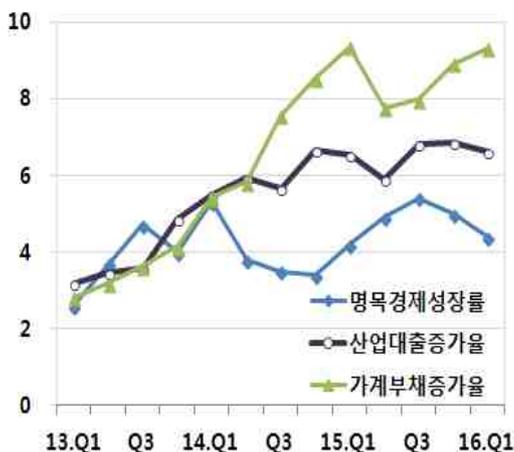
자료 :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현대경제연구원.
주 : 2016년은 현경연 추정치.

3) 재정지출 규모의 2011~2015년 규모는 결산 기준, 2016년은 추경 예산 기준.

4) 재정지출/GDP비율은 현대경제연구원 GDP 추정치를 사용.

- 이러한 확장적인 통화 및 재정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실물 경제의 건전한 회복이나 실물경제가 성장 속도보다 신용 확대 속도가 더 빠른 것으로 판단
 - 화폐유통속도가 일정하다는 무리한 가정 하에서 2014년 2분기 이후 신용증가율은 명목경제성장률을 크게 상회하는 모습임
 - 즉 실물 경제가 필요로 하는 유동성 수준을 넘어선 과잉 부분이 금융 섹터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함
- 특히 유동성이 기업활동보다는 가계대출로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면서 가계부채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
 - 산업별대출금 증가율과 가계부채 증가율 그리고 명목경제성장률은 2014년 1분기까지 서로 비슷한 수준을 기록함
 - 그러나 이후 가계부채 증가율이 산업별대출금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면서 시중 신용이 가계 부문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남
 - 이에 따라 가계의 부채 부담 수준을 나타내주는 가계신용/처분가능소득 비율은 2013년 133.9%에서 2015년 143.7%로 급증하였으며, 최근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와 소득 정체 추세를 감안할 때 2016년 수준은 150%에 근접할 것으로 판단됨⁵⁾

<명목경제성장률 및 부채증가율>⁶⁾



자료 : 한국은행.
주 : 예금취급기관 기준.

<가계신용/처분가능소득 비율>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한국은행.
주 : 가계신용 = 가계부채 + 판매신용.

5)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2016.6월)에 따르면 2016년 1분기 가계신용/처분가능소득 비율은 14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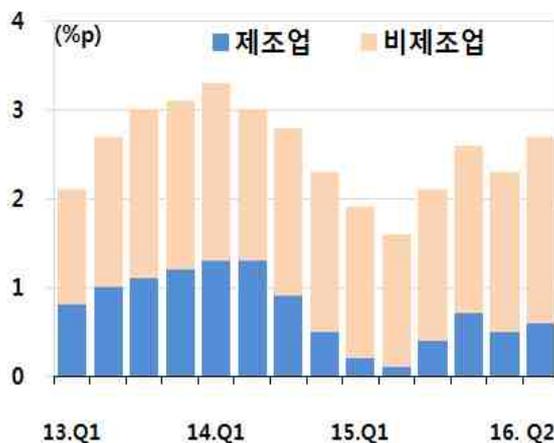
6) 산업별대출금 = 기업대출 + 공공기관대출.

④ 산업노화 경제

○ 산업구조적 관점에서 본다면 주력산업들의 노화와 리딩섹터가 존재하지 않는 역동성이 사라진 균형성장의 모습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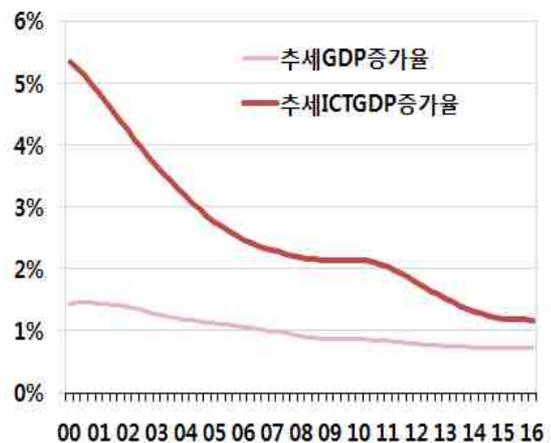
- 수출 부진의 영향과 제조업 구조조정의 진행으로 최근 제조업의 경제성장 기여도의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는 반면 비제조업(건설업 + 서비스업) 기여도는 점차 증가하는 모습
 - 제조업의 성장기여도는 2014년 2분기 이후 0%p대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반면, 비제조업은 같은 기간 2% 내외 수준의 높은 기여도를 유지함
- 한편 2000년대 이후 성장 견인 섹터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던 ICT 산업의 경우 2000년대 초반 고성장으로 전체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였으나, 시장과 산업의 성숙화로 최근에는 전체 경제와 성장 속도 차가 크게 축소
 - ICT 산업의 추세적인 실질 GDP 증가율은 2000년 1분기 전기대비 5.2%에서 2016년 1분기 현재 1.2% 수준으로 성장력이 크게 약화됨
 - 경제전체의 추세 경제성장률은 같은 기간 1.4%에서 0.7%로 하락함
 - 이에 따라 ICT 산업과 경제성장률의 격차는 전기비 3.9%p 수준에서 0.5%p로 축소됨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경제성장 기여도>



자료 : 한국은행.

<추세GDP 및 추세ICT생산 증가율>



자료 : 한국은행, 현대경제연구원.
 주 : 실질계절조정계열에 대한 추세의 전기비.

- 비제조업중 건설업 성장기여도가 주거용 건축 부문을 중심으로 증가하면서 경제성장의 일정 부분을 담당
 - 건설업 전체의 경제성장기여도는 2015년 분기평균 0.2%p 수준에서 2016년 1분기 0.4%p, 2분기에 0.6%p로 급증함
 - 건설업 내 세부 업종별로는 2016년 1분기중 건축 부문(공식적 용어로 건물 건설)이 0.4%p, 토목 부문이 0.0%p로 건축경기가 건설업 경기를 견인함

- 서비스업의 경우 성장성이 높은 업종은 공공행정 및 국방과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의 공공 섹터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등의 저부가 업종에 성장력이 집중되고 있으며, 사업서비스 등 고부가 업종은 생산 활동성이 미약한 상황
 - 2016년 상반기의 서비스업 세부 업종의 경제성장 기여도를 보면 공공행정 및 국방(0.2%p),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0.3%p)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0.3%p), 금융 및 보험업(0.2%p) 등이 비교적 높은 수준을 나타냄
 - 반면 정보통신업(0.1%p), 사업서비스업(0.1%p), 운수보관업(0.1%p) 등 비교적 고부가 업종들의 성장 기여도가 낮은 수준에 머물면서 서비스업의 경기 지지 역할의 한계를 유발함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경제성장 기여도>

		2015	2016상
서비스업		1.5%p	1.4%p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0.2%p	0.3%p
	운수 및 보관업	0.1%p	0.1%p
	금융 및 보험업	0.4%p	0.2%p
	부동산 및 임대업	0.1%p	0.1%p
	정보통신업	0.1%p	0.1%p
	사업서비스업	0.3%p	0.1%p
	공공행정 및 국방	0.2%p	0.2%p
	교육서비스업	0.0%p	0.0%p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0.2%p	0.3%p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0.0%p	0.0%p

자료 :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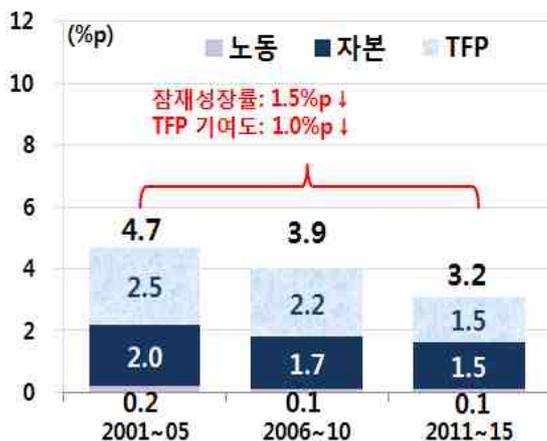
⑤ 비효율 경제

○ 생산요소적 관점에서 보면 효율성과 생산성이 아닌 외형 중심 경제 구조가 심화

- 최근 2%대 성장률이 고착화될 것이라는 우려에는 세계 경제의 불황보다는 경쟁력의 하락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인식이 존재
 - 만약 이러한 취약점이 개선되지 못 한다면 세계 경제가 회복 국면으로 전환되더라도 한국 경제는 여전히 불황을 보이는 경기 디커플링을 보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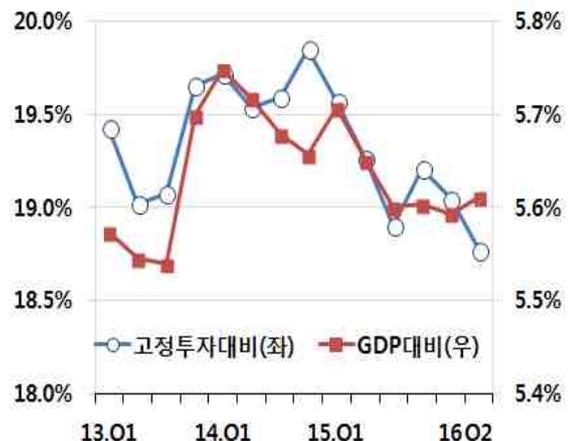
- 그러한 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중 TFP의 성장기여도가 빠르게 하락하고 노동생산성 개선이 정체되면서 최근 경제성장률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
 - 2001~2005년 잠재성장률은 4.7%에서 2011~2015년 3.2%로 1.5%p가 하락하였는데 이중 3분 2 수준인 1.0%p가 TFP 기여도 하락에 기인함
 - 특히 최근 경제 상황 악화로 기업들의 연구개발투자 여력이 위축되면서 2015년 이후 경제 내 지식재산에 대한 투자 비중이 급락하는 모습임
 - 지식재산생산물투자/고정투자 비중은 2015년 1분기에 19.6%에서 2016년 2분기에 18.8%로 하락하였으며, 지식재산생산물투자/GDP비중도 같은 기간 5.7%에서 5.6%로 하락함

<잠재성장률에 대한 생산요소 기여도>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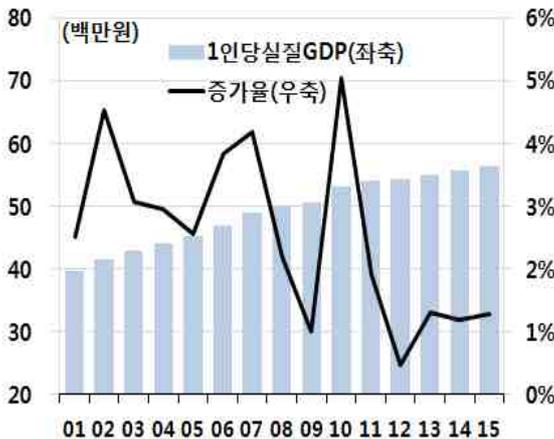
<지식재산생산물 투자 비중>



자료 :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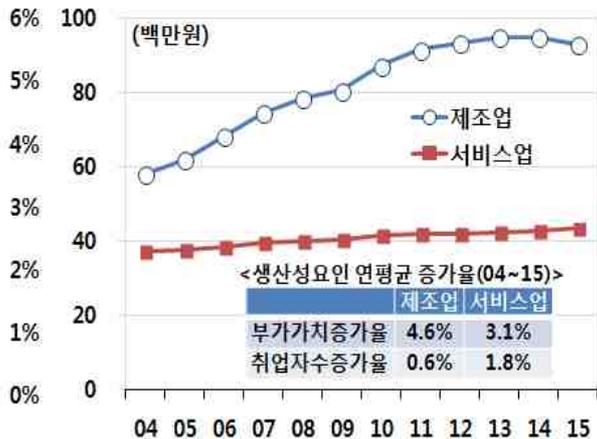
- 또한 산업 체력을 감안하지 않은 무리한 고용 장려 정책으로 경제의 노동생산성은 크게 악화
 - 취업자 1인당 실질GDP 증가율을 살펴보면 금융위기 이전(2001~07년) 3.4%에서 이후(2011~15년) 1.2%를 기록하면서, 최근 경제성장률 하락의 상당 부분이 생산성 하락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성 격차가 크게 좁혀지지 않고 있어 전체 경제 성장에 서비스업의 역할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
 - 2015년 현재 제조업의 취업자 1인당 실질 GDP는 2010년 연쇄가격 기준으로 9,290만원을 기록한 반면, 서비스업은 4,340만으로 제조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
 - 취업자 1인당 실질 GDP로 노동생산성을 가정할 경우 2004~2015년중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연평균 3.0%가 증가한 반면, 서비스업은 같은 기간 1.3% 증가 속도에 그침
 - 이는 제조업의 부가가치증가율은 연평균 4.6%인 반면 취업자증가율이 0.6%로 인당 부가가치 창출력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임)
 - 반대로 서비스업의 경우는 부가가치증가율이 연평균 3.1%인 반면 취업자증가율이 1.8%에 달해 생산성 자체가 크게 개선될 여지가 없었기 때문으로 판단됨

<취업자 1인당 실질GDP 및 증가율>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한국은행과 통계청 자료를 이용한 계산).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1인당 실질 GDP>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한국은행과 통계청 자료를 이용한 계산).

7) 노동생산성증가율 = 부가가치증가율 - 노동투입증가율.

3. 시사점

첫째, 대외 수요의 제약이라는 한계가 있으나 수출 경기 회복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

- 글로벌 장기 불황 국면으로 수출 경기 활성화 정책은 한계를 가지는 것은 분명해 보이나, 주력 산업인 제조업이 여전히 수출 의존적 시장 구조를 가지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적극적인 수출 확대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최대 시장인 중국으로의 수출 경기 회복을 위해 한중 FTA 활용 증대와 중국의 서비스 시장 및 소비 시장에 대한 공략을 강화해야 할 것임
- 이외 우리의 유망 수출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 베트남, 이란 등에 대한 시장 수요 분석을 강화하고, '한류 확산'에 기반을 둔 '한류 소비재'의 수출 확대 노력이 절실함

둘째, 경제 활성화 정책이 민간 수요 진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가계소비 및 기업투자 유인에 주력해야 한다.

- 경제 불황의 장기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당분간 재정정책의 방향은 경기 진작을 위한 확장적 기조를 유지해야 할 것임
- 나아가 정부의 경기 진작 노력이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가계 소비심리 회복과 기업투자 유인에 보다 주력해야 할 것임
- 특히 최근 시행되고 있는 기업활력법에 대한 기업들의 활용 확산을 통해 기업 투자의 무게중심이 기존 저성장 사업 부문에서 고성장이 예상되는 신기술·신산업 부문으로 신속히 이동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야 할 것임

셋째, 유동성 확대 정책을 지속하되 가계 쪽으로 집중되고 있는 부채 문제에 대한 관리 노력이 요구된다.

- 가계 부채 수준은 아직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가계 부채의 지나치게 빠른 팽창을 억제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다만 가계 부채 문제는 부동산 시장과 상호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흐름을 차단하는 접근 방법은 자칫 실물 경제에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어 면밀한 분석과 세심한 정책적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넷째, 제조업 내 구조조정에 따른 산업공백기 방지와 서비스업 내 고부가 산업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산업구조 모델의 정립이 시급하다.

- 최근의 제조업 구조조정이 자칫 산업기반의 붕괴로 이어지지 않도록 그 속도의 완급조절이 요구됨
 - 특히 부실기업의 채무 정리 목적에만 치중될 경우 후방연관산업들과 지역 경제 경기를 급랭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구조조정의 범위와 속도에 세심한 분석과 판단이 요구됨
- 나아가 제조업 구조조정은 기존 경쟁력 저하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과 고부가 및 유망 신산업 부문으로의 충분한 투자 확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자칫 유발될 수 있는 산업공백 문제를 방지할 수 있음

다섯째, 실효적 R&D 투자 활동 지속과 부가가치창출 중심의 기업문화 확립 등을 통해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 민간 기업의 R&D 활동은 경기 상황에 동조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경영 여건이 어려울수록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성장잠재력 확충에 주력해야 할 것임

- 특히 불황기에는 공공 R&D의 시장실패 보완 기능과 민간 R&D 유인 기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의 R&D 정책은 민간과의 시너지 효과가 큰 분야,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의 자원 집중 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한편 시장과 경제의 외형이 제약되는 장기불황기에는 노동과 자본의 물량투입보다 생산성이 경제 성장 속도를 결정짓기 때문에, 산업과 기업 단위의 생산성 제고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고용 안정화 대책은 산업의 체력에 맞도록 추진되어, 노동력의 무리한 확장으로 생산요소시장이 왜곡되는 현상을 방지하고, 산업 간 생산성 격차가 확대되는 문제점을 해소해야 할 것임 **HRI**

주 원 이 사 대 우 (2072-6235, juwon@hri.co.kr)